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착한 인연은 비켜가고

"오늘은 하늘의 문이 반쯤 열린다는 일요일인데 아침안개가 산허리에 감기더니 종일 내 방에는 수상쩍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한 남편은 죽고 한 남편은 헤어진 오십 줄넘긴 과부댁 둘이 용한 무당이 사자암에 가라해서 왔다며 재수 좋은 일, 돈 버는 일을 묻는다. 제기랄, 재수 좋으면 돈 벌었으면 일요일 산간(山間)에 퍼질러 이불빨래나 하며 짓이길까. 점심엔 일 년 내내 사과 한 알 사온 적 없는 김 처사가 친구까지 데려와 아껴먹는 군고구마 남김없이 먹어 치우고 사과나 배 없느냐며 냉장고 안까지 뒤져댄다. 여름엔 땀방울로 일궈놓은 열 평 남짓한 텃밭에서 풋고추랑 깻잎이랑 호박잎까지 따가던 박 보살이 오지 않아 다행, 라면 끓여 먹고 그릇은 대충 씻는 오십 넘긴 노총각이 오지 않아 다행, 이런 날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떡이나 천원에 두 개주는 황금잉어빵을 사오는 진짜배기 거사나 보살이 한두 명 다녀가면 좋으련만, 착한 인연은 비켜가고 지지리도 수상쩍은 버거운 인연만 드나들고... 늦오후엔 차라리 헤진 삶 다둑이며 가벼운 산행(山行)을 해야겠다. 마음을 반에 반쯤은 열고 염불대신 그리운 얼굴 떠올리며 휘파람으로 구성지게 추억이 가슴까지 차오르게 유행가나 두 어 곡 불러 봐야겠다. 시린 가슴에 눈물방울 두 어 방울 고일 수 있게."

몇 년 전에 낙서삼아 써둔 '착한 인연은 비켜가고'이다.

선재동자는 아니지만 일상의 생활 주변에서 보살과 투사, 부처와 중생을 만나며 늘그막 황혼기에 철들고 있다. 마음의 흐림과 맑음에 따라 보살이 투사로, 부처가 중생으로 키를 낮추며 다가선다.

내가 머물고 있는 사자암은 오르내리막 길이 업 다운이 심한 등산로의 해발 380m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사과 한 알을 몸에 지니고 오기에도 숨 가쁜 벅찬 노동일 수 있다. 중간에 음료수 파는 곳도 없어 요사채에 항시 마련해둔 봉지라면은 종교 신앙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들락거리며 라면을 셀프로 끓여 먹고 봉지커피로 휴식을 즐기며 잡담 나누며 돌아간다.

그런데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이다. 작심하고 온 어느 등산객들이 20여 명이 종각 밑에서 소주파티에 불고기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하여, 나는 그들에게 화난 감정을 잦아들게 한 후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이미 시작한 점심이니 맛있게 편하게 드시고 뒷정리는 말끔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한사람이 말하였다. "식사 후 감사기도와 성가(聖歌)도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고 엄숙한 품위가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 요사채의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 한 분을 보고 갑니다.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 하십시오 불교는 열린 종교라는 게시판의 주지스님 글도 읽고 갑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글쎄, 사자암 주지 성깔은 지랄이고 버럭 인데 모르시는 말씀이다. 다만 상황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버럭은 버럭을 불러들일 따름이다. 상대가 의도적인 잘못을 저지르며 도전해 오길 바란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평화이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직설적인 꾸짖음보다 배려와 이해로 부드러운 용서가 행복과 자유를 꽃피게 할 터이다.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피하라
분노는 결국 분노를 불러올 따름이다

그러나 받아들임의 이해와 용서만이 자비가 아니다. 섭수(攝受)의 자비보다 절복(折伏)의 자비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감싸는 자비가 섭수자비라면 말씀에 힘을 실어 꾸짖는 회초리 든 자비가 절복자비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자비는 〈열반경〉에 박혀있다.

소아마비의 아이에게 일정한 운동을 시키며 게으름이 없도록 회초리 든 심정의 아버지의 교육이 절복자비라면 아이가 안쓰러워 운동을 중간에 쉬게 하고 아이를 감싸며 게으름을 용서하는 어머니의 받아들임이 섭수자비인 것이다. 1년 내내 사과 한 알 사온 적 없는 김 처사가 친구까지 데려와 아껴먹는 군고구마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사과나 배 없느냐며 냉장고 안까지 뒤져댄다고 글을 남기는, 뒤 끝이 좀팽이인 사자암 주지이다.

오늘 점심시간에 요사채에 글 남긴 기독교인은 알까? 모를까? 별난 성깔, 버럭 성질을, 열 개, 스무 개의 얼굴가진 향봉인데.

부처는 '마삼근(麻三斤)'이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호북성(湖北省) 양주(襄州)는 삼(痲)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당나라 때 여기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삼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쳤다. 한 장정이 나라에 바쳐야할 최소한의 양(量)이 삼 세근을 바치는 것이었다. 일종의 납세의 의무였던 것이다.

동산수초(東山守初:910~980) 선사가 양주의 동산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학인이 찾아와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하기를 "마삼근(痲三斤)이니라." 라고 했다. 이는 나라에 바치는 장정 한사람 몫인 최소 단위의 삼 세근을 말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삼 세근이 부처'란 이 말은 이후 유명한 공안이 되었지만 부처를 남에게 물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처는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내 몫일 뿐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마치 나를 남에게 물을 수 없다는 뜻과 같은 말이다. 가령 내 이름을 내가 기지고 있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겠는가?

〈무문관(無門關)〉 18칙에 이 '마삼근'을 평가한 말이 이렇게 설해져 있다. "동산이 방합선(蚌蛤禪)을 공부하여 조개와 같이 두 입술을 떼자마자 뱃속의 간장을 모두 드러내 보였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 보라. 어디에서 동산의 본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게송을 읊었다. "느닷없이 삼 세 근이라고 말하니 그 말도 친절하고 뜻도 더없이 친절하구나. 옳으니 그르니 시비를 말하는 사람은 옳으니 그르니 하는 시비에 빠져 있는 사람일 뿐이다.(突出痲三斤 言親意更親 來說是非者便是是非人)

방합선이란 조개가 입을 벌리면 속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이 '삼 세근'이란 말 한 마디에 진실을 모두 보인 선이란 말이다.

〈벽암록(碧巖錄)〉 12칙 평창(評唱)에는 "이 공안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씹기가 어려워 아무나 쉽게 입을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담박(淡泊)하여 아무 맛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또 말하기를 "이 '삼 세근'은 장안으로 통하는 큰 길이 한 길로 쭉 뻗은 것과 같이 발을 들거나 내리거나 이 길을 밟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 화두는 운문이 제시한 '호떡(胡餠)'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렵다. 오조법연(五祖法演)이 게송으로 말하기를 값싸게 팔아먹는 장사들은 '삼 세근'을 저울에 달아 재고 있구나. 천, 백 년 동안 팔리지 않아 묵혀 둔 물건인데."라고 하였다.

운문(雲門)의 '호떡'은 운문문언(雲門文偃:864~949)에게 어떤 학인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해 준 말이다. 운문은 동산의 스승이다. 운문의 '호병'과 동산의 '마삼근'을 같은 류의 화두라 한다. 물론 '조주포삼(趙州布衫)'도 있다. '조주포삼'이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萬法歸一 一歸何處)'하는 질문에 답한 말을 두고 나온 말이다. 조조주의 대답은 '내가 청주(靑州)에 있을 적에 베적삼을 한 벌 지었는데, 무게가 일곱 근(斤)이었네'였다. 이 화두를 '조주포삼'이라 한다.

〈운문광록〉에 운문과 학인과의 대화는 이렇게 나온다.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은 무엇입니까?" "호떡이다."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운문이 이어 말했다. "그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이 조사의 뜻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을 묻었다. 그대는 무엇을 부처라 하고 무엇을 조사라고 하기에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을 하고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묻는가?"

〈벽암록〉 평창에는 또 "만약 '호떡'을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로 안다면 무슨 활로가 있겠는가? 호떡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한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활로이다. '삼 세근'도 같은 종류의 화두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고려 때 태고보우(太古普愚:1301~1381) 선사가 지어 부른 노래인 '태고암가(太古庵歌)'에 "운문의 호떡과 조주의 차는 이 암자의 아무 맛도 없는 밥에 비하여 어떠한가? 본래 이러한 옛 가풍을 놔두고 누가 그대에게 기특하다 논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운문의 호떡이나 조주의 차는 음식으로서의 맛이 아니라 선미(禪味)의 맛인 것이다.

자비 · 지혜 닦아 공덕을 쌓아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⑮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大丈夫品第二十二
菩薩悲心唯有一事之所逼迫。常爲他事苦來逼迫。更無餘事。是名成就悲聚。棄於涅槃如棄其苦。受於有身如取解脫。與世間利樂者名此爲悲。知涅槃功德生死過患然不捨有爲。如是一切盡是大悲功德。一切處離欲。以涅槃爲體而不取涅槃。名勇健者。大悲因緣故能入生死周旋往返。觀諸有盡滅知眾生是苦爲救爲依。心持大悲厭惡己身求十力身大悲之處得處悲處功德。如轉輪聖王雖有千子然愛相好具者。佛亦如是。於一切眾生愛有悲心者。唯能作福無智無悲名爲丈夫。有福有智名善丈夫。若修福修悲修智名大丈夫。應看悲者。有悲者應共語說。敬禮悲者具一切功德。

번역 | 대장부품 제22
보살은 자비심으로 오로지 핍박당하는 곳에서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며, 늘 타인을 위해 고통과 오는 핍박에도 섬기는 것이니 다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러 '자비 모음'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열반을 버리는 것을 괴로움 버리는 것처럼 여기며, 몸 받는 것을 해탈을 취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세상에 이익과 즐거움 주는 이를 자비롭다고 부르나니, 열반공덕으로 생사의 괴로움을 지날 줄 알아 유위법(有爲法)을 버리지 않으며, 이것을 일체의 모든 대비공덕으로 여기기에 일체의 곳에서 욕심을 떠났습니다. 열반으로써 근본 바탕을 삼되 열반을 취하지 않기에 일러 용맹하고 굳건한 사람이라 합니다. 대자비의 인연으로 능히 생사에 들어가 두루 돌며 가고 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하고 중생의 괴로움을 알기에 구제하며 의지처가 됩니다. 마음에 대비심을 지니고 자기 몸을 싫어하여 십력(十力)의 몸을 구하되 대자비 행할 곳에 머물며 대자비의 공덕에 머뭅니다. 전륜성왕에게 천 명의 자식이 있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여서 일체 중생 가운데 자비심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오로지 복을 지을 줄 알되 지혜 없고 자비가 없어도 장부라고 부르고, 복도 있고 지혜가 있어도 장부라 부르는데, 만약 복을 닦고 자비를 닦고 지혜를 닦는다면 대장부라 할 것입니다. 응당 자비로운 이를 살피고, 자비로운 이가 있으면 응당 함께 말하며, 자비로운 이를 공경하면 일체의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

해설 | 해마다 안거철이 되면 큰 스님들께서 법상에 올라 하시는 비슷비슷한 법문이 있다. '생사(生死)란 무엇인가. 안거하는 동안 생사를 벗어나는 대장부가 되시라'는 말씀이다. 때론 '한 생각 내는 것이 생(生)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사(死)'라는 말씀도 하신다. 모두 생사를 벗어나는 데 방점이 찍힌다. 그런데 제바 보살은 '생사에 들어가는 보살이 돼라'는 급진적 말을 하다못해 과격한 말을 한다. '중생과 함께 괴로워라'고 말한다.

제바 보살의 이런 말들은 기실 없던 말이 아니다. 화엄경의 십지(十地) 법문 가운데 제9지(九地)인 선혜지(善慧地)의 경계다. 선혜지(善慧地)는 중생 속에 뛰어들어 함께 울고 웃는 깨달음의 경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같은 상황의 한 생각 바뀜이 보살과 중생의 차이다.

채송화 한 그루
물만 주면 피고 지는 것이
인연 따라 나고 죽는
중생의 번뇌 같더니만,
다시 돌아와 그 곁에 앉으니
번뇌의 인연 따라 자비심을 자아내는
보살과 같았네.

경허 대선사 연구 출판물 발간

경허 대선사의 선사상을 선양하고 연구하고 수행하는 사단법인 경허 연구소에서는 2017년 10월 13일 (음 8월 24일) 경허 대선사 탄신 168주년 기념하여 그동안의 경허 선사 연구 출판물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인간 경허 연구'발간 : 김태흡의 인간 경허 번역
2. '경허 선시 연구'발간 : 경허 선시 266수 해설본
3. '경허 선시 감상'발간 : 경허 선시 266수 감상본
4. '경허성우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上)'발간 : 박사학위논문
5. '경허성우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下)'발간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5년도 「경허 성우의 중도불이 사상 연구」



「경허집」 강의 목차

1. 제1강 : 경허집 ····· 0
2. 제2강 : 서문 ····· 1
3. 제3강 : 약보 ····· 9
4. 제4강 : 박태평과의 문답 ····· 22
5. 제5강 : 승화 상인에게 드림 ····· 25
6. 제6강 : 김석사 장상사에게 보내는 글 (1) ····· 33
7. 제7강 : 김석사 장상사에게 보내는 글 (2) ····· 36
8. 제8강 : 자암거사에게 보내는 글 ····· 41
9. 제9강 : 너우후 ····· 45
10. 제10강 : 일진화 ····· 56
11. 제11강 : 법계당에게 보이다 ····· 63
12. 제12강 : 시중 ····· 75
13. 제13강 : 답화 ····· 80
14. 제14강 : 장곡사 보광암 비구니 무이당에게 써줌 ····· 85
15. 제15강 : 범어사 설선사 게의서 ····· 87
16. 제16강 : 여동암화상 ····· 93
17. 제17강 : 해인사 수선사 방함인 ····· 126
18. 제18강 :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 128
19. 제19강 : 걸 동수정혜 동생도솔 동생불과 계사문 ····· 142
20. 제20강 : 범어사 총섭 방함록서 ····· 220
21. 제21강 : 남원 천은사 불량서 ····· 230
22. 제22강 : 화엄사 상원암 복설 선실 정원규문 ····· 234
23. 제23강 : 동리산 태안사 만일회 범종 단나 방함기 ····· 243
24. 제24강 : 덕유산 송계암 회록 후 성조 권선문 ····· 247
25. 제25강 : 범어사 계명암 창건기 ····· 254
26. 제26강 : 범어사 금정산 계명암 창설 선사기 ····· 264
27. 제27강 : 범어사 금강암 칠성각 창건기 ····· 272
28. 제28강 : 취은 화상 행장 ····· 279
29. 제29강 : 서룡 화상 행장 ····· 297
30. 제30강 : 영찬 ····· 314
31. 제31강 :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 청규 ····· 323
32. 제32강 : 선문촬요 정법안장 서 ····· 331
33. 제33강 : 참선곡 ····· 338
34. 제34강 : 법문곡 ····· 347
35. 제35강 : 가가가음 ····· 356
36. 제36강 : 중노릇 하는법 ····· 361
37. 제37강 : 토굴가 ····· 307
38. 제38강 : 경석 동자에게 ····· 372
39. 제39강 : 귀취자기 ····· 374
40. 제40강 : 곽암 · 보명의 십우도 ····· 385
41. 제41강 : 경허 십우송 ····· 391
42. 제42강 : 경허 십우가 ····· 396
43. 제43강 : 경허 십우도 법문 ····· 405
44. 제44강 : 오도가(1) ····· 412
45. 제45강 : 오도가(2) ····· 424



사단법인 경허연구소에서는
2017년 경허선사 탄신 168주년을 맞아
「경허집」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시 10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장소 9호선 봉은사역 1번출구 봉은사 교육관
●문의 사단법인 경허연구소 010-7979-8530